



앗! 불안한 네일

1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범 경기. 1회말 KIA 선발 투수 네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네일, 두산과 시범경기서 3.1이닝 8피안타 6실점 '못매'...이의리 4이닝 7탈삼진 무실점

KIA 타이거즈의 새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예방 주사'를 맞았다.

KIA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시범경기 원정 경기에서 2-7패를 기록했다. 앞선 한화전에서 1-9패로 진 KIA의 연패다.

이날 선발로 나선 네일이 3.1이닝 6실점을 기록 하면서 KBO리그의 뜨거운맛을 봤다.

1회부터 네일의 실점이 기록됐다.

토타지 정수빈과의 승부에서 우전 안타를 내준 네일은 라모스를 삼진, 양의지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수빈에게 도루를 허용한 뒤 김재환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줬다.

2회에는 김인태에게 볼넷 하나는 내줬지만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안정적 모습을 보여줬다.

3회 다시 마주한 정수빈에게 이번에는 좌전안타를 허용한 네일, 라모스를 상대로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을 유도하면서 한 번에 아웃카운트 2개를 올렸다. 양의지는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잡으면서 3회도 잘 마무리했다.

네일은 4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이닝을 끝 내지는 못했다.

선두타자 김재환에게 던진 초구가 우전 안타가 됐다. 양석환에게는 좌전 2루타를 내주면서 무사 2-3루가 됐다.

이어 강승호와 허경민까지 4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0-4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네일은 김인태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한숨 돌렸지만, 박계범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다시 1사 만루 위기가 찾아왔다.

이와 함께 네일의 투구수가 70개에 이르자 KIA는 투수를 김대유로 교체했다.

김대유가 정수빈과 라모스에게 연달아 적시타를 맞으면서 네일의 책임주자가 모두 흠에 들어왔고, 이날 네일의 성적은 3.1이닝 8피안타 1볼넷 4탈삼진 6실점이 됐다.

또 다른 선발 이의리는 5회부터 마운드에 올라 컨디션 점검을 이어갔다.

이의리는 첫 상대 양석환을 초구에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운 뒤 강승호는 6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허경민은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삼자

범퇴를 만들었다.

6회에는 선두타자 김인태에게 좌중간 안타는 내줬지만 박계범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고, 김대환과 조수행을 상대로 연달아 탈삼진을 뽑아냈다.

7회에는 1사에서 장승현을 중전안타로 내보낸 뒤 폭투도 기록했지만 김민혁과 임종성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실점 없이 탈삼진 2개를 더했다.

이의리는 8회도 삼진으로 열었지만 볼넷 2개를 내주는 등 제구가 흔들렸다. 하지만 1사 만루에서 조수행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한 뒤 김기연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실점 없이 두 번째 등판을 끝냈다.

이의리의 성적은 4이닝 3피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이었다.

한편 KIA는 6회 2사 2루에서 나온 김도영의 적시타와 7회 서건창의 좌중간 2루타로 2점을 만들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2-7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홈 개막전 '챔필 10살 생일파티'

23~24일 팬사인회·기프트 박스 증정

KIA 타이거즈가 'ALL SET FOR 2024 TIGERS FESTA(2024 타이거즈 페스타 준비 완료!)'를 주제로 2024시즌을 연다.

23~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4시즌 오프닝 시리즈에서 정상을 목표로 질주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개장 10주년을 맞은 챔피언스 필드를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2024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23일에는 경기 전 '챔필 10살 생일파티'가 열린다.

챔필 '1호 기록' 가지고 있는 양현종(승리-탈삼진), 나성범(홈런), 김태균(타점)이 챔필 10살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커팅한다. 태권도 시범단 K-TIGERS의 태권도 시범 공연도 준비됐다.

시구자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마운드에 오른다. 애국가는 한국국제예술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성악 천재' 박애나(10) 어린이가 맡는다.

오프닝 시리즈 둘째 날인 24일에는 정윤지(10-

광주 서림초), 조이찬(10-광주 태봉초) 어린이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이들은 챔피언스필드에서 첫 경기가 열린 2014년 4월 1일에 태어났다.

광주 출신 팝페라 '사과나무'의 테너 김주형과 베이스바리톤 박성호는 애국가를 부른다.

9인조 실력과 걸그룹 케플러(Kep1er)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경기 전과 경기 중 클리닝타임에 축하공연을 하며 대표곡 '와다다' 등을 선보인다. 오프닝시리즈를 맞아 팬사인회도 진행된다.

23일에는 양현종과 김도영이 팬들을 만나고, 24일에는 나성범, 윤영철의 사인회가 열린다. 사인회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구단 채널을 통해 추후 공지된다.

KIA는 오프닝 시리즈를 찾는 관중에게 응원 타월 3만 개를 나눠준다. 인크커피는 리유저블 컵, 커피믹스, 드립백 등이 담긴 기프트 박스를 입장객 전원에게 선물한다.

한편 개막전 티켓 예매는 경기 7일 전인 16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

연패 끊은 페퍼스 승승장구...창단 첫 2연승

정관장 3-1로 첫 제압

16일 현대건설과 최종전

페퍼스가 정관장 상대전 첫 승리를 따내는 동시에 창단 이래 첫 연승을 기록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는 지난 13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5-17 25-21 14-25 25-19)로 승리하며 통산 맞대결에서 첫승을 기록했다.

창단 이래 첫 연승도 기록했다. 페퍼스는 지난 8일엔 '강팀' 흥국생명을 3-1로 꺾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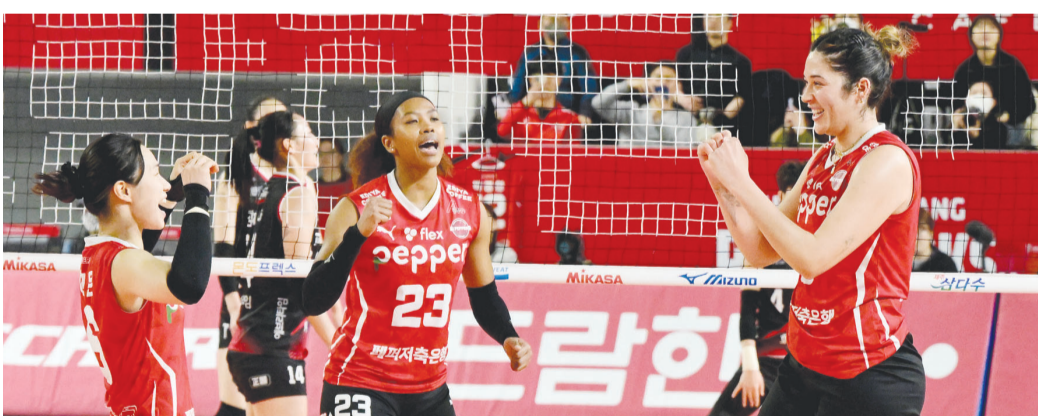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시즌을 보낸 페퍼스는 정규리그 막바지 사투 달라진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이다.

이날 1-2세트를 연이어 쟁긴 페퍼스는 3세트를 내준 후 다시 4세트를 따내며 승리했다.

페퍼스는 1세트 초반 야스민의 속공으로 8-8 동점을 만들어낸 이후 기세를 이어 단숨에 20점에 달했다. 그리고 24-17에서 상대 범실이나 오면서 페퍼스가 1세트를 가볍게 가져왔다.

2세트에서도 흐름이 이어졌다. 7-7에서 박정아의 득점으로 페퍼스가 리드를 잡았다. 17-14에서 박정아는 볼을 회전시켜 상대의 블로킹 아웃을 만들어낸 후 곧바로 페인트 공격에 성공하며 베테랑의 면모를 보였다.

3세트만큼은 정관장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3세트 초반 우위를 점한 정관장은 11-20에서 이선우가 야스민의 공을 막아내며 득점한 후 김세인이 서브에이스로 흐름을 가져오면서 멀리 달아났다. 페퍼스는 5개의 범실을 냈다. 정관장 이선우와 김세인이 각각 8득점, 5득점을 기록하며 세트점수



A페퍼스가 지난 13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전에서 상대 통산 첫 승리를 거둔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를 따냈다.

4세트에선 페퍼스가 시작부터 4연속 득점했다. 23-19에서 박정아의 서브 득점으로 페퍼스가 매치포인트에 달았고, 야스민이 강한 스파이크를 날리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페퍼스는 4세트에서만 4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렸다.

이날 야스민과 박정아는 매우 공격력을 보이며 경기를 이끌었다.

팀의 공격을 책임진 야스민은 42.19%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30득점을 쏟아냈다. 박정아도 36.3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18득점을 올렸다. 2023-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이주현과 이재은은 이날 처음 코트를 밟으며 데뷔전을 치렀다.

한편 페퍼스는 16일 오후 4시 홈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에서 1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첫 3연승에 도전한다.

이미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된 정관장은 지난

13일 페퍼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주전인 메가와 지아, 정호영, 박은진, 노란, 염혜선 없이 경기를 치렀다.

백업 멤버들로 기량을 점검한 정관장과 달리 1위 현대건설은 주축 선수들을 앞세워 총력전에 나선 설 수 있다.

승점 77로 1위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 0-3 셋아웃 패배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2위 흥국생명(승점 76)이 1점 차 2위로 추격을 해왔다. 15일 흥국생명 이 먼저 GS칼텍스를 상대로 최종전을 치르는 만큼 현대건설은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은 우승 확정을 위해 '필승 라인업'으로 페퍼스를 상대할 수 있다.

페퍼스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첫 3연승으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이 맛에 메이저리거

MLB 서울시리즈 다저스·샌디에이고, 초호화 전세기로 내한

189석 중 80%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선수들 가족까지 이용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단은 전용기 혹은 전세기를 이용해 이동한다.

미국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3시간이 날 정도로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항공기 이동은 필수다. MLB 각 구단은 매년 전세기 이용으로만 약 1000만 달러(약 132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 나갈 땐 좀 더 특별한 전세기를 이용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서울에서 2024 MLB 개막 시리즈를 치르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단은 초호화 전세기를 타고 내한한다. 두 구단은 미국 A 항공사가 운영하는 전세기를 대절했다.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15일 오전, 다저스 선수단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데, 두 선수단 모두 보잉사가 제작한 747-400 VIP PLUS 기종을 탄다.

이 기종의 전세기는 일반 상용기와는 다르다.

객실 길이 약 71m, 폭 6.4m의 2층 대형 여객기인 747-400 VIP PLUS엔 단 189석이 설치됐다. 일반 여객기인 747-400이 500~600석을 채우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으로 구성됐다.

전체 좌석의 75.7%인 143석이 비즈니스 클래스이고, 일등석인 퍼스트클래스 좌석은 10석이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단 36석뿐이다.

두 구단 선수와 코치진, 프런트 직원들은 물론 선수들의 가족까지 같은 항공편을 타고 이동한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왼쪽)이 14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구단 전세기에 오르고 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셜 미디어 캡처>

A 항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747-400 VIP PLUS 전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항공기 중 하나로 전 세계 모든 곳을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다"며 "고객들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전세기 이용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가 변동과 미국-한국 이동 거리를 고려하면 100만 달러(13억원) 전후의 비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